

'93년 에너지 수급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

1. 총에너지 수요

- '93년 총에너지 소비증가율은 8.4%를 기록하여 지난 수년간의 증가세에 비하여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 '90년 이후 20% 내외의 높은 소비증가세를 보이던 석유소비의 증가세는 '93년에 10.1%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석유전망 참조).
- 석유의존도는 62.8%로 '92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전력소비는 안정된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11.6%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전력전망참조).
- '93년 에너지/GNP 원단위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92년대비 1.7%증가한('92년증가율 7.2%) 0.798(TOE/'85년 백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이러한 에너지/GNP 원단위의 증가세 둔화는 구조요인과 개별업종의 에너지효율요인중 주로 구조요인에 기인함.
- '91년, '92년 에너지/GNP 원단위의 높은 증가세를 주도했던 석유화학산업의 나프타수요 증가가 '92년 동산업의 대체적인 설비확장 완료

로 '93년에는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92년 82.8%→'93년 3.3%)할 전망이다.

주요 에너지소비증가 지표

	1991	1992 (추정)	1993 (전망)
총에너지 소비(변화율, %년)	11.2	13.7	8.4
(나프타제외)	9.3	7.6	9.1
석유소비(변화율, %년)	19.2	22.1	10.1
전력소비(변화율, %년)	10.6	10.0	11.6
석유의존도(%)	57.5	61.8	62.8
GNP 증가율(%년)	8.4	6.0	6.5
에너지/GNP(TOE/'85년백만원)	0.732	0.785	0.798
에너지/GNP 탄성치	1.34	2.28	1.28

2. 석유

- 1993년 석유소비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1992년 대비 9.8% 증가한 580백만배럴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이는 89년 이후 석유소비의 높은 증가세를 주도하여왔던 석유화학산업의 나프타수요가 93년에는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승용차증가에 의한 수송부문 휘발유 소비 증가와 연료전환에 의한 가정·상업부문의 등·경유 증가는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품별 석유수요 (단위 : 백만배럴)

	1991	1992	1993
석유합	424.7(19.2)	528.3(24.4)	580.2(9.8)
휘발유	28.7(21.2)	34.4(19.9)	39.9(16.0)
등 유	25.6(2.6)	31.4(22.7)	34.6(10.2)
경 유	114.5(17.5)	125.0(9.2)	139.8(11.8)
B-C 유	122.6(17.3)	136.4(11.3)	153.9(12.8)
L P G	43.1(20.8)	56.1(30.2)	60.0(7.0)
나프타	65.7(38.1)	120.0(82.6)	123.9(3.3)

註 :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주요 유종별 소비전망〉

□ 휘발유

- 1993년 소비는 전년대비 약 16% 증가한 39,935천배럴 수준으로 전망됨.

- 휘발유 소비증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승용차대수 증가가 주요원인임.

- 1993년말 승용차 등록대수는 1992년말 등록대수인 3,487천대 보다 23% 증가한 약 4,335천대로 전망되고 배기량별 구성비는 1992년 수준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자세한 내용은 부문별 소비전망 부분 참조).

□ 경유

- 93년 소비는 전년대비 약 11% 증가한 139,816천배럴 수준으로 전망됨.

- 증가율면에서 이것은 작년보다 다소 높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이는 산업부문 경기가 작년보다 다소 회복되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상용차 내수 증가율도 둔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 상용차내수는 92년에 18.4%에서 93년 11.7%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자세한 내용은 부문별 소비전망 부분 참조).

□ 등유

- 93년 소비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34,573천배럴 수준으로 전망됨.

- 증가율면에서 92년보다 크게 낮지만, 작년의 높

은 증가율은 91년의 극히 낮은 증가율에 기인한 것임.

- 석탄에서 석유(등유 혹은 경유)로의 연료전환이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가정·상업부문 난방용 무연탄소비가 92년 1,145만톤에서 93년 917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감소분의 상당부분은 석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연료전환에 의한 석유소비 증가는 가정·상업부문 소비전망 부분 참조).

□ B-C 유

- 93년 소비는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153,876천배럴 수준으로 전망됨.

- 증가율면에서 작년보다 다소 높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대수요처인 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의 생산활동 부진이 예년보다 낮은 증가율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화학산업은 에틸렌 및 BTX 생산량이 92년 5,806천톤에서 5,862천톤으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고 철강생산량은 92년 17,527천톤에서 8.6% 증가한 19,035천톤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문 소비전망 참조).

□ 나프타

- 1993년 소비는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123,858천배럴 수준으로 전망됨.

-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확장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추가적 신규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1993년 총설비능력은 6,237천톤으로 1992년 설비능력 5,806천톤에 비해 7% 증가에 그친 수준임.

· 누적된 과잉설비투자로 1993년에는 공급과잉이 예상됨.

- 특히 합성수지등 계열공장이 100% 가동할 경우 30만톤의 에틸렌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전망되어 석유화학산업의 가동율은 1992년 100%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가동을 하락과 나프타 소비는 산업부문 소비전망 참조).

〈부문별 석유소비 전망〉

□산업부문

-1993년 산업부문 석유소비 예측 기본안

- 기본가정
경제성장률 : 6.5%
유가수준 : 1992년말 유가수준 유지

산업부문 유종별 소비전망

	1992	1993	차감
석유소비량(백만 Bbl)	242.8	255.1	12.3
나프타(백만 Bbl)	120.0	123.9	3.9
B-C 유(백만 Bbl)	66.4	71.1	4.7
경 유(백만 Bbl)	24.8	26.7	1.9
기 타(백만 Bbl)	31.6	33.4	1.8
전년대비 증가율(%)	42.2	5.1	

-주요산업 전망 :

*석유화학, 섬유, 철강산업이 산업용 석유소비의 61.2%(199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①석유화학산업

- 설비확장완료 : 93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31% 감소전망
- 석유화학산업 설비능력 : 5,806천톤(92), 6,237천톤(93)
-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동을 저하 예상
- 93년 예상가동율 : 94%(92년 가동율 : 100%)
- 93년 순생산증가에 따른 나프타증가량 전망 : 3,870천배럴

②섬유산업

- 93년 섬유생산은 1,596천톤으로 92년 생산수준 1,550천톤에 비해 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에따라 B-C 유 소비도 92년의 9,547천배럴에서 9,833천배럴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철강산업

- 92년에 경기부진으로 인한 내수위축, 미국의 반덤핑공세, 국제적인 철강재 가격하락 등으로 불황국면을 맞고 있고 이같은 불황은 9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92년의 재고가전년대비 30~45% 증가해 있고

수요증가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93년 철강생산은 92년 생산수준 17,527천톤에서 약 8.6% 증가한 19,035천톤으로 전망됨.

- 이에따른 동산업 B-C 유 소비도 92년 8,054천배럴에서 8,747천배럴로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률 변화와 산업용 석유소비 증감전망(기본안 대비)

(단위 : 천배럴)

경제성장률	연료유	B-C 유
5%	-3,416	-1,907
6%	-1,139	-636
7%	+1,139	+636

註 : 연료유는 B-C 유, 경유, 등유, 휘발유 포함.

□수송부문

-수송부문 석유소비 예측 기본안

- 기본가정
차량등록대수 : 6,710천대(1993년말)
승용차 : 4,335천대('92년대비증가율27.5%), 택시 : 195천대(증가율 5.4%), 상용차 : 2,179천대(증가율 17.8%)
유가수준 : 1992년말 유가수준 유지

수송부문 유종별 소비전망

(단위 : 백만배럴)

	1992	1993	차감
석유소비량	132.1	146.7	14.6
휘발유	32.9	38.2	5.3
경유	66.4	73.5	7.1
부탄	12.3	12.9	0.6
기타	20.5	22.1	1.6
전년대비증가율(%)	14.8	11.1	

-1993년 실질연비는 10.45km/ℓ 로 추정되며 추정근거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효율등급 3급기준과 배기량별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한 1992년 명목연비는 12.87km/ℓ 로 추정됨.
- 1993년 출고될 증차분의 명목연비가 1992년까지 출고된 차량의 명목연비보다 10% 개선된다고 가정할 때 1993년 명목연비는 13.06km/ℓ 로 추정됨.
- 명목연비는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신차를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과대평가된 것임.

-유종별 증가요인 분석

	휘 발 유		부 탄		경 유	
	1992	1993	1992	1993	1992	1993
소비량(천배럴)	32,874	38,218	12,326	12,946	66,449	73,457
연비(km/ℓ)	10.28	10.45	10.26	10.33	7.18	7.25
평균주행거리(km)	17,294	16,240	112,930	112,436	46,159	42,917
차량대수(천)	3,107	3,910	178	189	1,644	1,973
소비증감(천배럴)		-5,344		+620		+7,008
요인별증감(천배럴)						
연비향상		-534		-83		-625
주행거리단축		-2,003		-54		-4,664
차량대수증가		+7,881		+756		+12,296

註 : 연비향상(534천배럴) = 기술향상에 의한 연비향상(503천배럴)
 + 배기량별 구성비 변화에 의한 연비향상(31천배럴)

- 실제 석유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실질연비는 명목연비보다 낮음. 실질연비는 명목연비의 80%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산함.
 1992년 실질연비 : 10.28km/ℓ
 1993년 실질연비 : 10.45km/ℓ
 (명목연비 추정근거는 부록 참조)
- 연비변화는 기술적인 요인과 자동차의 배기량별 구성비변화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휘발유의 경우 기술적인 연비향상에 의한 소비감소분(503천배럴)이 배기량구성비변화효과(31천배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주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석유소비 감소(6,721천배럴)가 연비향상에 의한 감소분(1,242천배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유가인상과 수송부문 석유소비 감소전망

- 유가인상(20%)시 감소전망

	증가분 (천배럴)	총소비 (천배럴)	증가율 (%)
1992년 자동차 연료용석유소비		132,101	
1993년 차량증가효과	20,873	152,974	15.8
기타요인	-6,275	146,699	11.1
유가인상(20%)	-8,134	138,565	4.9

-최근 자가용 승용차 증가는 경기변화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므로 수송용 석유소비, 특히 휘발유소비는 경기와 상관없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전력

- '93년 전력소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128천GWH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 '93년 최대부하는 '92년대비 14.5% 증가한 2,340.4만kW에 이를 전망이나, 하절기 최대부하시 공급능력이 2,548.1만kW로 늘어날 예정임에 따라, 최대부하시 9%의 공급예비를 확보 예상.
- 용도별 '93년 전력 수요 전망
- 가정용
 - '92년대비 9.2% 증가한 23,454,951MWH가 될 전망이며, 이는 '92년의 예상증가율 10.3% 보다는 약간 둔화된 것임.
 - 가정용 건축허가면적이 실제 전력수용가수에 영향을 주는 시차는 평균 1년 6개월이며, 91년 상반기까지의 가정용 건축허가면적을 고려할 때, 93년 가정용 수용가수는 9,714천호(전년대비 3.4% 증가)로 전망.
 - 호당 연평균 전력사용량은 5% 내외의 성장세가 계속되어 '93년에는 2,466KWh(전년대비 5.8% 증가)일 것으로 예상됨. 이중 경기변동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증가는 2.8%, 명목가격 고정에 따른 실질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효과와 증가는 2.8%, 92년 하계 저온현상이 93년에는 8년 평균기온으로 회복된다는 가정에 따른 기상효과와 증가는 0.2%로 예상됨.

- '92년의 가정용 수용가수는 9,395천호(전년대비 4.8% 증가)이고 호당연평균 전력사용량은 2,331KWh(전년대비 5.5% 증가)으로 추정됨.
- 상업용
 - '92년대비 13.1%가 증가한 25,919,896M-WH가 될 전망이며, 이는 '92년 예상 증가율 16.3% 보다는 둔화된 것임.
 - 최근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상업용 전력 소비는 건축경기 하락과 함께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된 전망. 이것은 '93년 신규 수용가수고지표인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임.
 - 상업용 전력소비는 지금까지 수용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계약전력은 늘어난 반면 kW당 전력사용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음.
 - '93년의 상업용 계약전력은 9,960MW(전년대비 11% 증가)이고 kW당 전력사용량은 1,943KWh(전년대비 2.1% 증가)로 예상됨. 이중 경기변동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의 증가는 1.01%, 명목가격고정에 따른 실질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효과의 증가는 1.0%, 92년 하계 저온현상이 93년에는 8년 평균기온으로 회복한다는 가정에 따른 기상효과의 증가는 0.08%로 예상됨.
 - '92년의 요금적용전력(kW)은 8,973MW(전년대비 14.6% 증가)이고 kW당 사용량은 1,903KWh(전년대비 1.7% 증가)로 추정.

- * 상업용의 경우에는 수용가의 규모에 따른 소비 행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전력, 즉 요금적용 전력과 kW당 사용량으로 구분함.
- 산업용
 - '92년대비 11.5%가 증가한 78,796,497M-WH로 전망되며, 이는 '92년 예상 증가율 8.1% 보다는 다소 높은 것임.
 - 산업 전력수용가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호당 사용량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가동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
 - 산업용 수용가수는 최근 몇년간 5% 전후의 증가세를 보여왔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산업용 건축허가면적의 추세에 기초한 '93년의 산업용 수용가수는 210천호(전년대비 5.3% 증가)로 예상됨.
 - 산업생산경기가 작년보다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호당연평균 전력사용량은 '92년 2.5% 증가율보다 높은 6.2% 증가하여 395,614KWh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중 소득효과의 증가는 2.98%, 명목가격 고정에 따른 실질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효과의 증가는 2.97%, 92년 하계 저온현상이 93년에는 8년 평균기온으로 회복한다는 가정에 따른 기상효과의 증가는 0.25%로 예상됨.
 - '92년의 산업용 수용가수는 199천호(전년대비 5.6% 증가)이고 호당 연평균 전력사용량은 372,519KWh(전년대비 2.5% 증가)일 것으로 추정함.

전력 수급추세 및 전망

		1991	1992	1993
전력	총수요(GWH)	104,374(10.6)	114,851(10.0)	128,170(11.6)
	가정용(GWH)	19,482(9.9)	21,485(10.3)	23,455(9.2)
	상업용(GWH)	19,709(13.3)	22,921(16.3)	25,920(13.1)
	산업용(GWH)	65,183(10.0)	70,445(8.1)	78,796(11.9)
	시설용량(MW)	21,111(0.4)	23,430(11.0)	26,361(12.5)
	공급능력(MW)	20,148(7.9)	21,737(7.9)	25,481(17.2)
	최대부하(MW)	19,124(10.9)	20,438(6.9)	23,404(14.5)
	예비전력(MW)	1,024(-28.3)	1,299(26.9)	2,077(59.9)
	예비율(%)	5.4	6.4	9.0

註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 '93년 최대부하 전망

- '93년 하계 최대부하는 7, 8월 기상요인, 평균 부하량, 경제 여건등 여러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임. '93년 GNP 성장율을 6.5~6.0%로 상정할 때 23,370~23,404(GW)로 예측되며, '93년 한전의 공급능력을 고려할 때 9% 내외의 예비율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최대부하시 예비율 6.4% 보다는 호전될 전망이다.

4. 유연탄

○ 유연탄소비는 '92년 10월 포철 광양 4호기 준공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인 선철 및 시멘트 생산의 정체가 예상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증가추세는 둔화될 전망이고, 발전용은 유연탄 발전설비의 신규가동(보령 3호, 4호, 삼천포 3호)으로 약 31%의 소비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전체 유연탄소비는 전년대비 14.1% 늘어난 30.5백만톤에 이를 전망.

부문별 유연탄 소비 (단위 : 백만톤)

	1991	1992	1993
총 량	24.8(13.5)	26.7(7.5)	30.5(14.1)
산업부분	19.1(18.0)	19.3(1.4)	20.8(7.7)
발전	5.8(0.9)	7.4(27.4)	9.6(30.9)

註 :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5. 무연탄

○ 무연탄 소비는 민수 난방용 연탄수요의 계속되는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10백만톤을 약간 상회하는 소비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 이내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무연탄 수급 (단위 : 백만톤)

	1991	1992	1993
총 수 요	17.56(-18.4)	13.39(-23.8)	10.98(-18.0)
산업부분	0.30(7.1)	0.07(-76.9)	0.05(-28.6)
가정·상업	15.18(-21.0)	11.45(-24.6)	9.17(-19.9)
발전	2.07(4.4)	1.87(-9.9)	1.76(-5.7)
총 공급	17.44	11.84	10.50
연말재고수준	8.27	7.23	6.75

註 :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6. LNG

- LNG는 도시가스용 수요의 증가(38.4%)와 수도권 열병합 발전소의 가동으로 전력용 수요가 증가(17.7%)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2.7% 증가한 416만톤의 소비증가가 예상됨.
- 도시가스용 LNG 소비량은 144만톤 수준으로 전체 LNG 소비의 35%를 점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물량은 18.6% 증가한 4.20백만톤('92년 공급물량은 3.54백만톤)으로 계획됨.

LNG 소비 (단위 : 백만톤)

	1991	1992	1993
총 량	2.69(15.7)	3.39(25.8)	4.16(22.7)
발전	1.80(3.4)	2.31(28.3)	2.72(17.7)
가스제조	0.88(52.6)	1.04(18.4)	1.44(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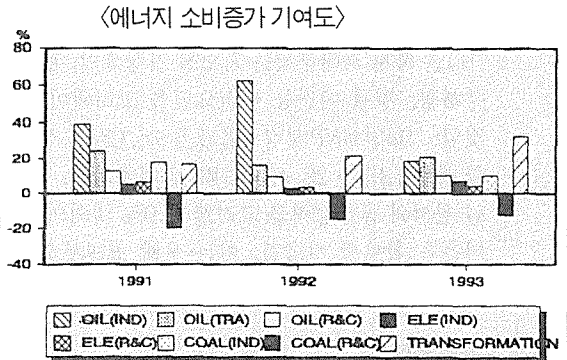
註 :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7. 기여도 분석

- 93년도 1차 에너지소비증가(8.3%, 9.8백만 TOE)에 대한 용도별·에너지원별 기여도는 수송용 석유가 1.71% 포인트(전체 증가의 20.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용 석유가 원료용 나프타의 0.42% 포인트를 포함하여 1.53% 포인트, 그리고 산업용 석탄이 0.83% 포인트의 기여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전체증가의 14.96%에 해당하는 1.25% 포인트의 증가가 원료용 에너지 소비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여, 92년(기여율 50.51%, 기여도 6.91% 포인트)과 달리 원료용 에너지의 기여도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나프타분해설비 증식완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

아 전체 석유소비의 증가기여도는 92년의 12.7% 포인트에 비해 크게 낮은 6.3% 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건축불경기의 영향을 받아 기존주택의 재건축 및 이에 따른 난방시설의 교체 부진으로 연탄에서 석유, 가스로의 연료전환도 그 증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난방·취사용 연탄소비의 마이너스 기여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주요통계

에너지원별 수요구조

	1990	1991	1992	1993	전년비증가율 (%)		
					'91	'92	'93
1 차에너지(백만TOE)	93.2	103.6	117.8	127.6	11.2	13.7	8.3
석유(백만배럴)	356.3	424.7	528.3	580.2	19.2	24.4	9.8
	(53.8)	(57.5)	(61.8)	(62.8)			
무연탄(백만톤)	21.5	17.6	13.4	11.0	-18.4	-23.9	-17.9
	(10.7)	(7.6)	(5.1)	(3.9)			
유연탄(백만톤)	21.9	24.8	26.7	30.5	13.5	7.7	14.2
	(15.5)	(16.0)	(15.0)	(15.7)			
L N G(만톤)	232.9	269.4	339.0	415.9	15.7	25.8	22.7
	(3.2)	(3.4)	(3.7)	(4.2)			
수력(천GWH)	6.4	5.1	4.7	4.7	-20.6	-7.8	-
	(1.7)	(1.2)	(1.0)	(0.9)			
원자력(천GWH)	52.9	56.3	56.9	56.4	6.5	1.1	-0.9
	(14.2)	(13.6)	(12.9)	(11.9)			
신탄(백만톤)	2.8	2.2	2.0	2.2	-22.5	-9.1	10.0
	(0.9)	(0.6)	(0.5)	(0.5)			
최종에너지(백만TOE)	75.0	83.7	94.9	101.4	11.6	13.4	6.8
석유(백만배럴)	324.0	378.6	472.6	509.3	16.9	24.8	7.8
	(60.3)	(63.1)	(67.9)	(68.5)			
전력(천GWH)	94.4	104.4	114.9	128.2	10.6	10.1	11.6
	(10.8)	(10.7)	(10.4)	(10.9)			
도시가스(억m³)	9.6	14.7	21.0	26.2	52.3	42.9	24.8
	(1.4)	(1.9)	(2.3)	(2.7)			

부문별 석유 소비

(단위 : 백만배럴)

	1991	1992	1993
산업 부문	170.7(22.5)	242.1(41.8)	255.0(5.3)
수송 부문	115.1(13.8)	132.1(14.8)	146.7(11.1)
가정·상업	77.3(14.6)	87.5(13.2)	94.8(8.3)
공공·기타	15.5(-3.7)	10.9(-29.7)	12.7(16.5)
발전	41.4(39.4)	49.8(20.3)	65.1(30.7)
총 계	424.7(19.2)	528.3(24.3)	580.1(9.8)

註 :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배기량별 승용차 분포

(단위 : 천대)

	1992말	1992~1993		1993말
	등록대수	증차	폐차	등록대수
1,000cc 이하	80.2(2.3)	24.5	4.0	100.7(2.3)
1,500cc 이하	2,416.5(69.3)	735.8	120.6	3,031.7(69.9)
2,000cc 이하	913.6(26.2)	222.8	45.9	1,090.8(25.2)
2,500cc 이하	55.8(1.6)	25.6	2.9	78.6(1.8)
2,500cc 이상	20.9(0.6)	13.2	1.0	33.1(0.8)
합 계	3,487.0(100.0)	1,021.9	174.4	4,335.0(100.0)

배기량 분포와 평균연비 산출근거

	1992 이월분 (%) (A)	1992 연비 (km/ℓ) (B)	1993 증차분 (%) (C)	1993 연비 (km/ℓ) (D)
1,000cc 이하	1.8	19.05	0.6	20.96
1,500cc 이하	53.0	13.30	17.0	14.63
2,000cc 이하	20.0	11.55	5.1	12.71
2,500cc 이하	1.2	9.05	0.6	9.96
2,500cc 이상	0.5	7.00	0.3	7.70

* 1992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1993년에도 계속 운행될 차량

** 1993년에 출고된 등록된 차량으로 1993년 운행될 차량

최대평균연비(1993) = (A × B + C × D)/100 = 13.06km/ℓ

평균연비(1993) = 최대평균연비(1993) × 0.8 = 10.45km/ℓ

1981~1991년 난방도일 분포

(단위 : 회수)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100 이하				4		
100~200				7		
200~300					2	
300~400			7		9	
400~500		4	4			2
500~600	2	6				8
600~700	6	1				1
700 이상	3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 천 TOE)

	1991	1992	1993	전년대비증가율 (%)	
				'92	'93
산업	42,914 (51.3)	52,231 (53.3)	55,746 (53.0)	21.7	6.7
수송	16,156 (19.3)	18,447 (20.3)	20,471 (21.0)	14.2	11.0
가정 · 상업	21,845 (26.1)	22,136 (24.2)	22,744 (23.6)	1.3	2.7
공공 · 기타	2,813 (3.4)	2,118 (2.3)	2,439 (2.4)	-24.7	15.2
합계	83,728 (100.0)	94,932 (100.0)	101,399 (100.0)	13.4	6.8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단위 : 천 TOE)

	1991	1992	1993	전년대비증가율 (%)	
				'92	'93
석유	24,251	33,070	34,868	36.4	5.4
에너지유	13,846	14,843	15,920	7.2	7.3
L P G	438	1,331	1,431	203.8	7.6
나프타	9,966	15,261	15,753	82.7	3.2
석탄	12,745	12,790	13,764	0.4	7.6
무연탄	166	32	23	-81.0	-28.6
유연탄	12,579	12,759	13,741	1.4	7.7
(제철용)	9,208	9,460	10,439	2.7	10.3
전력	5,606	5,977	6,647	6.6	11.2
도시가스	313	394	467	26.0	18.5
합계	42,914	52,231	55,746	21.7	6.7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단위 : 천 TOE)

	1991	1992	1993	전년대비증가율 (%)	
				'92	'93
석유	16,062	18,346	20,359	14.2	11.0
휘발유	3,551	4,338	5,043	22.2	16.3
경유	8,717	9,719	10,744	11.5	10.5
L P G	1,270	1,362	1,429	7.3	4.9
전력	94	101	112	7.7	10.9
합계	16,156	18,447	20,471	14.2	11.0

가정 · 상업부문 에너지 소비

(단위 : 천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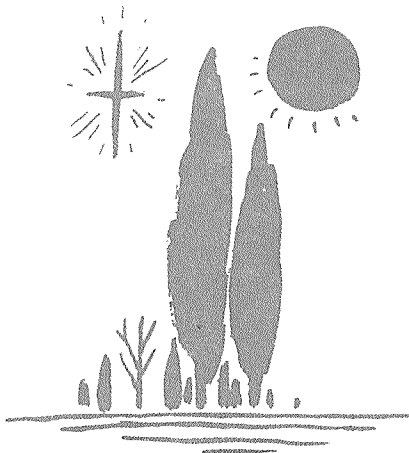
	1991	1992	1993	전년대비증가율 (%)	
				'92	'93
석유	10,166	11,487	12,427	13.0	8.2
에너지유	7,926	9,044	9,743	14.1	7.7
L P G	2,177	2,392	2,611	9.9	9.1
석탄	7,170	5,052	3,783	-29.5	-25.1
신탄	617	560	617	-9.1	10.3
전력	2,732	3,229	3,635	18.2	12.6
도시가스	1,160	1,808	2,282	55.9	26.2
합계	21,845	22,136	22,744	1.3	2.7

에너지 소비증가 기여도

	증가 기여율, % (% P)		전년비 증감율, %	
	1992	1993	1992	1993
수송용석유	16.11(2.20)	20.47(1.71)	14.21	10.97
산업용전력	2.62(0.36)	6.81(0.57)	6.63	11.21
산업용석유	62.21(8.51)	18.28(1.53)	36.37	5.44
(나프타)	48.73(6.67)	5.01(0.42)	82.71	3.23
산업용석탄	0.32(0.04)	9.90(0.83)	0.36	7.61
(원료탄)	1.78(0.24)	9.95(0.83)	2.74	10.34
가정·상업용전력	3.50(0.48)	4.13(0.34)	18.17	12.57
난방·취사용석유	9.32(1.28)	9.56(0.80)	13.00	8.18
난방·취사용연탄	-14.94(-2.04)	-12.90(-1.08)	-29.54	-25.12
전환부문	21.00(2.87)	32.10(2.68)	14.93	13.81
[석유계]	93.08(12.73)	75.03(6.26)	22.13	10.13
1차에너지계	100.00(13.68)	100.00(8.35)	13.68	8.35

'93년 완공예정 발전소

예정시기	발전소	설비용량(천kw)
93. 2	보령화력 #3	500
6	보령화력 #4	500
6	삼천포화력 #3	560
6	일산열병합	400
6	부천열병합	300
	계	2,260(천kw)



경제용어

과세특례

영세기업의 보호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세금우대 제도.

연간 매출액이 일정액(3천6백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장부기장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제출에 관한 특례와 예정신고 고지납부에 특례 등을 뒤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줄여주고 있다.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영세기업은 2%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우대 대상자는 「과세특례자」라고 하며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특례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를 폐지했다.